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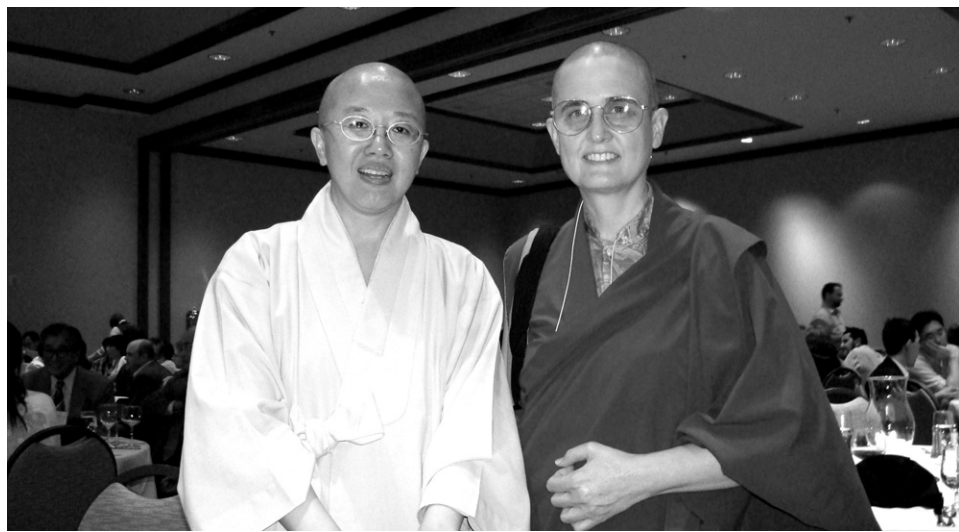
미국 풍토에 맞게 변해... 한국불교 역할은?

미국 부처님은 몇 살 입니까
명법 스님 저음
이름다운 인연 펴냄
1만8천원

“정보통신의 발달로 동시대적 환경에 노출된 동서양은 자본주의의 한계와 물질문화, 인간소외, 지구환경의 오염 등 많은 문제를 함께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적 지혜를 기르고 힘을 모아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본지에 ‘불교와 미학’을 연재중인 저자 명법 스님은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문학도다. 저자는 대학 시절 누군가가 미국으로 유학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공학도거나 경제학도거나 생각하거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국행이든 환자쯤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랬던 그가 박사논문이 통과된 후 지도교수의 권유로 2007년 겨울, 미국행을 결심한다.

그는 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을까? 스님은 책머리에서 “산문(山門)에 있던 세월 동안 팍스아메리카나 시대가 도래했고, 세월 탓인지, 수행 덕분인지, 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맘 담대해져 있었다. 미국 어떤 여파라,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라면 그



워싱턴근교에 티베트 사찰을 만든 안니쿵가 스님(오른쪽)과 IABS 학회서 찍은 사진

들에게 타자인 내가 어떻게 비치는지, 세계의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라. 그것은 또한 다시 나를 비추는 거울일 테니 말이다.”라고 소회를 밝힌다.

미국에서 승려하면서 방문학자라는 조금 특별한 신분은 저자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학위과정도 아니고 한인 사찰에 매여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가 미국에 있을 때 <미디어북다>에 기고한 <서양문화에 나타난 불교 코드>연재 글과 귀국 후 2010년 가을부터 2011년 겨울까지 <법보신문>에 기고한 <세계 속 한국불교> 연재 글 중 일부를 추린 뒤 원래는 계획했으나 메모만 해 둔 글들을 바탕으로 새로 구성한 것이다.

김치, 된장, 고추장 등 한국 음식이 가득 담긴 집을 끌고 우여곡절 끝에 스미스 칼리지가 위치한 미국의 노샘프턴에 도착한 이야기, 그곳서 지도교수인 피터 그레고리 교수 소개로 헤빈 스님을 비롯해 여러 미국 불교학자들을 만난 이야기, 경전을 영역하는 작업에 참여했던 이야기, 여러 수행 단체를 방문한 이야기 등을 현장감 넘치는 언어로 담백하게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불교가 아시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뒤 미국 풍토에 맞게 변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 변화 중 하나가 출가승단의 부재이다. 사실 미국처럼 풍요롭고 자유분방한 나라에서 세속적 쾌락을 버리고 승가의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일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 수행에는 재가와 출가의 차이가 없지만 만약 불법을 오래 전 하려면 출가승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친다.

현지에서 체험한 재미있는 정보도 알려준다. 미국인 대부분의 불교지도자들이 재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승가(Sangha)’란 말이 스님이 아니라 일반 불자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인다고 한다. 스님은 한국불교가 미국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로 피력한다. 안타깝게도 미국서 한국 불교는 중국과 일본 불교 사이에 끼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 불교 연구자가 없어 관련 영문서적도 출판되지 않고, 한국 불교가 알려지지 않으니 연구자도 줄어든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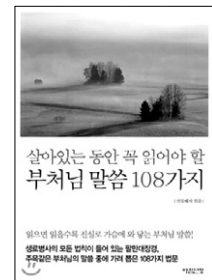
이처럼 이 책은 미국불교에 대해 우리가 이제껏 잘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제공함과 동시에 독자들로 하여금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미국에서 일본 불교가 선점하고 있다가 최근 티베트, 동남아 불교가 인기를 끌고 있다. 동양에 대한 관심은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를 어떻게 알리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현대미술 작품을 보면 불교서 영감 받은 경우도 많으며 또 이런 걸 보면 현대문명의 문제를 불교적 측면에서 풀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1217@hyunbu.com

팔만사천경서 가려뽑은 108개의 감로법문

살아있는 동안 꼭 읽어야 할 부처님말씀 108가지
선목해자 저음 | 아침단청 펴냄 | 1만3500원



살아있는 동안 꼭 읽어야 할 부처님 말씀 108가지

“모든 속박을 끊어 버려 두려울 것이 없는 자, 매듭을 풀어 자유로운 자, 이러한 자를 나는 성자라 부른다.”

부처님이 10년 동안 수행하고 제자들을 45년이나 가르친 후, 열반을 앞두고 있을때였다. 제자 중 마하가섭은 부처님께 “아직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영원히 우리를 곁에 있어 계속 법문을 들려 주옵소서.” 하고 간청 했다.

“허허, 가야 할 때가 되었다. 난 45년 동안 설법을 하였지만 단 한 번도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없다. 이미 나의 설법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거늘, 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설법을 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마하가섭을 꾸짖었다. 정말 파격적인 설법이었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 그대로를 꺼내어서 다시 들려주었을 뿐, 그 이상의 설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시면 이제 누구에게 설법을 들려야 하옵니까?”

“허허, 45년 동안 그렇게 설법을 하였는데도 아직 모르겠는가. 그렇게 집착을 버리라고 했는데도. 나는 너희들을 가르쳤지만 아무 것도 가르친 것이 없다. 있다 해도 마하반야 바라밀이란 단지 그 이름뿐이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이전 누가 우리들을 가르칠 것입니까?” 부처님은 다시 대답했다.

“자등명 범등명(自燈明 法燈明)이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계율을 등불 삼아 살면 된다는 말이였다. 이렇게 부처님이 남기신 말씀은 무려 팔만 사천경에 이른다. 그러나 일반 불자들이 이것들을 다 읽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그 속에서 인간의 고뇌, 외로움, 분노, 행복 등 진리의 말씀들로 가득하다. 이 책은 그 많은 경전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108가지를 뽑은 책이다.

인간의 비극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그 욕망은 우리들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처님은 많은



설법을 통해 어리석은 우리를 '깨침'으로 인도하고 있다. 문장 문장마다 녹아 있는 주옥같은 교훈들은 우리

들에게 진정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를 섬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 책은 부처님이 걸어오신 생애와 부처님의 주옥같은 법문에 선목해자 스님이 해설을 곁들인 것이다. 말하자면 이 책 한 권으로 부처님이 수행을 시작하고 열반하기까지의 모든 고행의 흔적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을 알 수 있다.

부처님 설법의 요체와 어렵게만 느껴지던 불교 지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사슴, 새, 코끼리, 토끼 등의 비유를 통해

경전속엔 주옥같은 교훈 듬뿍
해자 스님 읽기 쉽게 경전 해설

들려주는 이야기는 많은 재미와 감동을 던져 준다.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감동으로 작은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불교경전은 어렵다. 또한 선불교 사상마저도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하다. 한국의 대표적인 선지식인 경허 스님이나 경봉 스님, 청담 스님의 선문(禪文)들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제대로 일반인들에게 읽혀지지 않았다. 또한 부처님의 경전들조차 제대로 읽혀지지 않았다. 일반 신도들이 읽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선목해자 스님이 이 책을 펴내게 된 것이다. 이 책은 부처님의 전생이야기, 과거세이야기, 아함경, 법구경, 순타니파타, 화엄경, 백유경, 법구경, 초기불전인 테라기타, 테라기타 등 거의 모든 경전을 참고로 하여 원문을 뽑고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설을 붙인 책이다. 일반 신도들이 보다 쉽게 부처님의 말씀을 각인(刻印)할 수 있도록 경전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108가지를 뽑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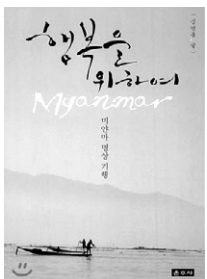
이런 이유를 선목해자 스님이 이 책을 펴내게 된 것이다. 이 책은 부처님의 전생이야기, 과거세이야기, 아함경, 법구경, 순타니파타, 화엄경, 백유경, 법구경, 초기불전인 테라기타, 테라기타 등 거의 모든 경전을 참고로 하여 원문을 뽑고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설을 붙인 책이다. 일반 신도들이 보다 쉽게 부처님의 말씀을 각인(刻印)할 수 있도록 경전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108가지를 뽑은 책이다.

김주일 기자

‘명상’ 주제로 한 미얀마 기행집

행복을 위하여

심연홍 저음 | 운주사 펴냄 | 1만천원



행복을 위하여

미얀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얼굴로 다가오는 나라이다. 아웅산수처 여사의 민주화 투쟁이, 혹자에게는 아직도 폐쇄적인 은둔의 나라로, 혹자에게는 미개발 저소득의 빈민국가로, 혹자에게는 찬란한 불교유적과 수행자의 나라로 인식돼 있다.

덧붙여 저자는 최빈국에 속할 정도로 궁핍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최상위인 미얀마 사람들의 삶이 궁금하기만 하다. 저자는 미얀마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밝은 미소의 원천을 엿보고자 미얀마의 불교, 미얀마의 서민들, 미얀마의 문화를 탐색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 속에서 울리는 마음의 공명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이 책의 형식과 성격, 주제는 제목과 부제

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즉 미얀마 기행이라는 형식에, 우리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명상의 과정을 간결하면서도 감칠맛 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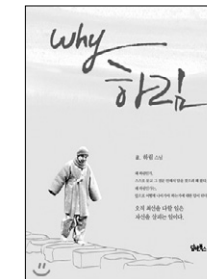
이 책은 기행문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기행문과는 다르다. 1, 2부로 나누어진 이 책은 1부에서 ‘미얀마 체험’을, 2부에서는 미얀마 찬매명상센터에서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책장을 넘기면서 저자의 폭넓은 사유와 명상 속으로 함께 빠져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저자와 함께 미얀마 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독자들은 마음의 불순물이 빠져나가면서 단순해지고, 아울러 함께 행복을 느끼게 된다. 이 책은 세심한 심리묘사와 간결하고 흡입력 있는 문체가 특징이다. 즉 명상이라는 가법지 않은 주제를 기행과 에세이의 형식을 통해 최대한 가법적, 때로는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으므로, 독자들은 명상에 대해 부담 없이 다가가 그 참맛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책의 여기저기에 배치된 사진들 또한 우리 마음을 미얀마로, 미얀마인의 삶 속으로, 명상의 세계로 이끄는 일에 일조한다.

김주일 기자

감사한 마음 갖는 것, 일상의 감동 비결

why 하림

하림 스님 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3천원



why 하림

전법도량 사찰인 부산 미타선원에서 일찍부터 ‘행복선(禪)수행학교’를 열고 ‘생활 속의 선 수행’ ‘생활 속의 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주지 하림 스님은 몇 년 전부터 부처님오신날에 신도들에게 책을 선물한다. 이번에도 사찰 회보에 쓴 ‘주지스님 에세이’와 틈틈이 적은 산문을 묶어 책으로 펴냈다.

그간의 책들 <하림이예요> <하림 스님의 두 번째 프로젝트> <이게 아인디>에서 이번 <why 하림>까지 이어지는 저자의 글을 보면 주변 가까운 이들과 생활 깊숙이 어울려 있음을 볼 수 있다. 회보에 실린 에세이보다 보니 신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많지만 딱히 신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스님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대중들을

만난다. 미타선원이 위치한 부산 중구의 조기축구회 멤버로 활약하며 이웃과 어울린다. 또 근처 자갈치시장의 상인들, 용두산공원에 나오는 어르신 들과도 조곤조곤 얘기를 나눈다. 이 책에는 그들에게서 듣는 이야기 한마디들과 수행하면서 느끼는 일상의 감동들로 구성돼 있다.

책은 총 4장으로 나누어졌다. ‘행복으로 가는 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행복 속에 사는 사람’으로 매달의 이야기들이 순차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장나눔이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은 책을 전제로 관통하는 말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감사합니다’이다. 조금 더 풀어써 말하자면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감시다’가 되겠다.

저자는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 감동, 반성 등을 그날그날 일기를 쓰는 듯 차분히 들려주고 있는데 내가 어찌 겪었거나 오늘 느낄 만한 우리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 쉽게 공감된다. 이 책이 불교도만을, 미타선원 신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주일 기자

좋은인연 대출안내

33년의 역사와 자산825억원의 형산 새마을금고는 변함없이 전국의 많은 사찰과 좋은인연을 맺고 있으며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어 좋은 인연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1 대출이자 ☞ 1억 대출시 최고 58만원
- 2 대출기간 ☞ 5년 (만기시 연기 가능)
- 3 근저당설정비 ☞ 면제
- 4 대출지역 ☞ 전국 (제주도포함)
- 5 단체명의, 중단 소속사찰 모두가능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약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승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한해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중